

<해외지역정보>

아르헨티나,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 시작

국별조사실

□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지속

-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이후 예금인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위헌판결로 예금인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 예금인출과 폐소화 평가절하, 장기 불황으로 인한 대출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대규모 도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금년 4월에는 캐나다 Nova Scotia 은행의 아르헨티나 자회사 Scotia Quilmes 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30일간 영업 정지된 이후 제3자 매각을 추진중이며, 5월에도 프랑스 Credit Agricole 은행의 아르헨티나 자회사 3개 은행이 영업 정지된 이후 국영은행인 Banco de la Nacion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음.

□ 예금인출제한법 의회 통과

- 예금인출사태로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4월 22일(월)부터 금융 거래를 무기한 중단시키는 비상대책을 발표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금인출사태의 해결책으로 정기예금의 강제 채권전환계획(Bonex plan)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와 은행 그리고 예금주들의 반발로 동 계획은 폐기됨.

- 한편, 4월 24일 두알데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14개항에 이르는 경제대책에 합의하였고, 25일에는 대량 예금인출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인출제한법이 의회를 통과함.

※ 예금인출제한법은 예금주가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1심 판결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출을 허용하였고, 예금반환 소송의 제기를 연방법원으로 제한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기로 함.

- 이에 따라 29일부터 은행업무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함께 외환시장도 만 7일만에 재개장됨.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기에금의 채권전환 계획을 포기한 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은행 구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아르헨티나 자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거나 인수·합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외국계 은행 대부분이 철수할 듯

- 아르헨티나 상위 20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외국인 소유 은행임. 아르헨티나의 외국계 은행들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과 폐소화 평가절하 이후 약 8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함.
- 2001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은행 예금 동결조치의 해제 없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함.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는 금년에도 14% 이상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은행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철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Nova Scotia 은행은 5월 22일 아르헨티나 11위이며, 9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Scotia Quilmes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11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청산계획을 중앙은행에 제출함.
- 스페인의 BSCH와 이태리의 IntesaBCI도 아르헨티나 자회사인 Banco Rio와 Banco Sudameris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프랑스의 Credit Agricole도 Banco Bisel, Banco Suquia 그리고 Banco Entre Rios 등 3개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 이후 경영권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넘어감.
- 외국계 금융기관의 철수와 더불어 104개 은행, 4,200개 지점, 100,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금융산업은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문의처 김영석 ☎ 3779-6653 claudio@koreaexim.go.kr

최성규 ☎ 3779-6665 ppio93@koreaexim.go.kr